四生, 모두 전도를 원인으로 시작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㊲ 사생(四生)이 태어나는 연유

〈원문〉 "아난아, 세계에서 허망하게 윤회하는 동전도(動顚倒)를 원인으로 한 까닭에 기(氣)와 화합하여 8만4천 어지러운 생각을 이루나니, 이렇기 때문에 난생(卵生)의 갈라남(羯邏藍)이 국토에 유전하느니라. 물고기(魚), 새(鳥), 거북이(龜), 뱀(蛇)의 종류가 가득해서 세계에서 뒤섞여 오염된 채 윤회하는 욕전도(欲顚倒)를 말미암는 까닭에 자양(滋養)과 화합하여 8만4천 횡수(橫豎)의 어지러운 생각을 이루나니, 이렇기 때문에 태생(胎生)의 갈라람(羯邏藍)이 국토에 유전하여 사람이나 축생, 용, 신선의 종류들이 가득하니라. 세계에서 집착으로 윤회하는 취전도(趣顚倒)를 말미암는 까닭에 따뜻함(煖)에 화합하여 8만4천의 번복(飜覆)하는 어지러운 생각을 이루나니, 이렇기 때문에 습기 상태의 폐시(廢尸)가 국토에 유전하여 함준(含蠢), 연동(蝡動)의 종류가 가득하니라. 세계에서 변역하여 윤회하는 가전도(假顚倒)를 말미암는 까닭에 촉(觸)과 화합하여 8만4천의 신고(新故)의 어지러운 생각을 이루나니, 이렇기 때문에 변화하여 태어나는 갈남(羯南)이 국토에 유전하여 허물을 벗고 날아다니는 종류가 가득하느니라."

〈강설〉 중생이 태어나는 최초의 실마리가 어지러운 생각(亂想)에서 비롯된다고 〈능엄경〉에서는 밝히고 있다. 12류생 가운데 사생이 태어나는 인유(因由)를 밝히는 대목이다. 사생이 모두 전도를 원인으로 시작되는데 난생은 동전도(動顚倒)이다. '허망하게 윤회하는' 의 허망은 업이 시작되는 최초의 생각 곧 망상(妄想)으로, 이것이 더욱 어지러워져 난상(亂想)이 된다고 하였다. 기(氣)란 움직이는 기운이다. 바람이 일어나는 기운과 같은 것이다. 8만4천은 인도에서 즐겨 쓰던 만수(滿數)의 의미를 가지는 수치다. 갈라람이란 처음 태(胎)에 들어간 7일 동안의 기간에 엉켜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응활(凝滑)이라고 번역하는 인도말이다. 난생은 정분(情分)보다 상분(想分)이 많은 상태로 태어나는 종류다. 그래서 새들처럼 몸이 가벼워 날아다니는 종류가 많다. 상(想)은 가볍고 정(情)은 무겁다. 태생(胎生)은 정으로 생기니까 잡염(雜染)으로 윤회한다 하였다. 정(情) 자체가 잡염이다. 또한 음욕(婬欲)이 강하기 때문에 욕전도(欲顚倒)다. 횡수(橫豎)라는 것은 몸집의 모양이 사람처럼 서 있는 수직 자세인 것은 수(竪)이고 짐승들처럼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은 횡(橫)이다. 알포담(遏蒲曇)이란 태중 오위(五位) 가운데 두 번째 주기간의 응활(凝滑)에서 겁데기가 생기는 상태라 포(皰)라고 번역한다. 태생에 포함되는 중생류를 사람, 축생, 용, 신선(神仙)이라 예를 들었는데 〈능엄경〉에서는 육취(六趣)에 신선취(神仙趣)를 더하여 칠취설(七趣說)을 말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도교적인 색채가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능엄경〉이 인도에 비장(秘藏)되어 있던 경이라 하나 범어 원전이 발견되지 않고, 만날밀제(般剌密帝)라는 역자(譯者)까지 밝혀져 있으나 중국에서 찬술된 경으로 보는 것이 근대에 와서 통설이 되었다. 습생(濕生)은 습기에 의지해 생기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습생은 습기 있는 곳을 좋아하므로 이를 집착이라 표현하고 습기 있는 곳으로 가니까 잘못 나아간다 하여 취전도(趣顚倒)라 하였다. 습생도 온기를 의지해야 생기므로 따뜻한 것과 화합한다고 하였다. 번복이란 뒤집어지고 자빠져 있는 모습을 말한다. 폐시(蔽尸)는 태중 세 번째 주일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연육(軟肉)이라 번역한다. 부드러운 살이 생기는 단계이다. 습생은 대부분 꿈틀거리는 벌레 종류다. 그런데 습생으로 생긴 벌레들이 화생(化生)으로 몸을 바꾸는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슬기라는 벌레는 나중에 잠자리가 되고 굼벵이는 매미가 되는데 이런 경우 몸을 바꾸기 위해 허물을 벗는다고 하여 전세화생(轉蛻化生)이라고 한다. 화생을 변역 윤회라고 했는데 몸이 완전히 바뀌져 달리지는 것을 말한다. 폐시에서 1주일을 더 지난 갈남(羯南) 상태가 살이 단단해진 경육(硬肉)이라고 한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숨'이 가지는 의미



구선 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㊲ 코숨호흡

코숨 호흡

'숨' 이라는 말은 '서로 의지해서 존재의 깊숙한 곳에 깃든다' 는 뜻이다. '서로 의지한다.' 라는 말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있다. 첫째는 내기(內氣)와 외기(外氣)라는 의미가 있다. 둘째는 육체와 정신이라는 의미가 있다. 셋째는 개체 생명과 세계라는 의미가 있다. 넷째는 나와 상대라는 의미가 있다.

외기와 내기는 세 종류의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초양자 에너지, 양자 에너지, 전자기 에너지가 그것이다. 초양자 에너지는 생명의 본성에서 생성된다. 양자 에너지는 초양자 공간에 내재되어 있는 정보로 인해 생성된다. 전자기 에너지는 물질 입자에서 생성된다. 생멸문의 본원인 원초신에서도 세 종류의 에너지가 생성되고 개체 생명들도 세 종류의 에너지를 생성해 낸다. 생명들이 살고 있는 공간은 수많은 개체 생명들이 생성해 내는 생명 에너지와 원초신이 생성해 내는 생명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개체 생명들은 호흡을 통해 원초신이 생성해 내는 에너지를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에너지적 동질성을 유지해 간다. 육체와 정신이 서로 분리되면 호흡이 끊어진다. 반대로 호흡이 끊어져도 육체와 영혼이 서로 분리된다. 육체와 정신이 서로를 의지해야 호흡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개체 생명은 스스로가 속해있는 세계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늘과 땅, 공기와 물을 공유하면서 생명성을 지켜간다. 개체 생명이 세계를 의지하지 못하면 존재로서 틀을 유지하지 못한다. 세계가 개체 생명을 의지하지 못하면 공간을 지탱시켜 주는 에너지를 얻을 수 없게 된다. 마치 세포와 몸의 관계와 같다. 몸의 틀이 없으면 세포 연합체가 형성되지 못하고 세포가 없으면 몸을 유지시키는 에너지를 생성해 내지 못한다. 지구와 나, 우주와 나는 이런 관계로 서로를 의지한다. 호흡을 통해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나의 에너지를 제공해 준다. 개체 생명 간에도 똑같은 교류가 이루어진다. 서로가 생성해 내는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의지한다. 심지어는 개체 생명끼리 가까워지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생성된다. 막과 막이 대치되면서 생겨나는 에너지이다.

호흡을 통해 받아들이는 외기 중 천기와 지기, 사대의 에너지가 있다. 이는 지구와 별들이 생성해내는 전자기 에너지이다.

천기는 해와 달, 별들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이다. 천기는 때와 장소에 따라서 땅으로 내려오는 시간이 서로 다르다. 지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별들이 화성, 목성, 금성, 토성, 해와 달이다. 이 별들이 생성하는 에너지가 땅으로 내려오는 시간이 있다. 천기를 받아들이려면 그 장소에 어떤 별의 인력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별의 인력이 도래하는 시간을 알아야 한다. 장소에 따라서 천기가 도래하는 주기가 있다. 몇 년에 한 번씩 도래하는 곳도 있고 하루에 한 번씩 도래하는 곳도 있다. 천기를 섭취하려면 살갗호흡과 코숨호흡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지기는 지구가 생성해 내는 생명 에너지이다. 지기가 표출되는 장소가 있다. 그런 장소를 명당이라 부른다. 지기를 섭취하는 것도 피부 호흡과 코호흡을 병행한다. 천기나 지기를 얻으려면 자연과 교류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야 한다. 천기와 지기를 보는 법을 알아야 되고 그 자리에서 어떤 형질의 에너지가 응집되어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사대란 지(地), 수(水), 화(火), 풍(風)을 말한다. 사대 에너지는 사대의 원신과 체백이 서로 합쳐져서 형성된 에너지이다. 바람, 땅, 물, 불은 무정생명이다. 한 가지 주체의식과 세 종류의 공간 에너지로 원신적 틀을 이룬다. 체백은 공간의 고유 형질을 유지시켜주는 미생물이다. 모든 물질 생명은 체백을 통해 몸의 형질을 유지한다. 사대의 원신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체백을 갖고 있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흐 스님의 〈능가경〉 강설

㊲ 태어남이 괴로움

오온을 '나'라고 하지 않는 용기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콩을 심어 콩이 나고 팥을 심어 팥이 나는 이치들뿐이다. 만약 우리가 이런 이치를 벗어난 마음을 가진다면 염치없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 이미 주어진 세상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곳이 아니다. 그저 자신이 그만큼을 원해서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뿐이므로 살아가는 모습에서 각양각색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 행복하다거나 불행하다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은 없다. 그 차이는 사람의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각자의 마음 작용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마음 작용은 한두 번 가진다고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도 아주 많은 노력이 필요하듯, 태어나서 나타나는 작용들도 아주 많은 노력의 결과들이다. 사람들에게 바라는 모양으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더라도 실천하는 일은 쉽게 되지 않는다. 당연히 피나는 노력을 전제하므로 만족하는 결과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미 만족스러운 조건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피나는 노력을 하였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순환 속에 있음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항상 일어나는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게 되기 때문이다. 순환하는 삶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 같지만 절대로 당연한 일이 아니다. 아무리 좋은 복을 쌓더라도 언젠가는 무너지고, 아무리 악한 일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뉘우치고 좋은 일을 하여 복을 받게 된다. 이러한 삶에서 우리는 무엇이 옳은 삶인지를 알기는 매우 어렵다.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이다. 물에 빠진 사슴을 구해주는 일은 판단하기 쉽지만, 배고픈 사자와 잡아먹히지 않으려는 사슴을 보았을 때,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하는지는 어려운 문제이다. 인연 따라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요즘 파충류를 키우는 사람들을 보면 살아있는 곤충을 아무 생각 없이 먹이로 쓴다. 어릴 때는 몰라서 할 수도 있는 일이라지만 안다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세상은 인연 따라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인연의 일에서는 옳은 것을 찾을 수 없고 옳지 않은 것도 찾을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순환이 괴로움이라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순환의 괴로움이 생겨나면 어느 한 쪽의 편을 들지 못한다. 그러므로 멈출 수밖에 없다. 지혜로 보면, 좋은 인연을 심어 좋은 열매를 따서 그 태어남 속에 풍요롭게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낼 수가 없고, 좋은 인연을 심지 못해 지금 여기에 일어나는 장애를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도 낼 수가 없다. 그저 분별하여 판단할 수 없음에 대한 마음의 갈등을 자세히 살펴볼 뿐이다. 그러다 우연히 서서히 살펴본다는 것 자체가 판단이라는 것을 알 때가 온다. 그때가 되면 알게 모르게 모든 것에 대해 '나' 라고 하였고, '나의 것' 이라 하였고, '내가 있다' 고 하는 마음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경계는 즐거움도 없고 괴로움도 없이 흐르는데, 그 속에서 나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는 그 마음 작용으로 괴로움이 생겼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참으로 쉰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에서 보편적 사고만 있을 뿐, 밀고 당길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세상에 무슨 이치가 있는 줄 알고 미리 겁을 먹고,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상상하여 일으킨 자신의 생각에 의미를 부여하여, 그것과 일치하는 어떤 결과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어긋나게 되었던 것이다. 살면서 인생의 충고는 듣기 쉬워도 지혜의 소리는 듣기 어렵다. 설사 듣더라도 한 마음을 내는 일은 더더욱 어렵다. "태어남이 괴로움입니다"라고 알려주면 누가 이것이 참다운 진리인 줄 알겠는가?

우리는 항상 진리를 듣고 기뻐하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생겨난 것을 나보고 어쩌라고!' 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버린다. 진리는 지금의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 그것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바로 알아서 상상의 세계에서 빠져나와 자신이 무엇인지 알아버리라는 것이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78-1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010-7384-1708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전화 한번에 끝! 자동이체로 전환하세요
(02)2004-8212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 · 불자정보
(사찰, 포교당 양도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교의 현대화 —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kakao Ch 카카오톡 채널에서 현대불교신문을 검색하세요!
NAVER 현대불교신문